

'부채 200조' 한전, 신규채용 규모 확 줄었다

신입사원 지난해 266명...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 인원도 대폭 감소 퇴직 직원 증가에 임직원 580명 감소...재무위기 일자리 수백개 줄어

한국전력(한전)이 극심한 재정난으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많게는 1800명을 웃돌던 한전의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 200여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빛고을혁신도시 입주 기업이자, 지역 인재 채용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한전이 채용을 축소하면서 지역 청년 채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744명이 퇴직한 한전은 266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그쳤다. 퇴직하는 직원의 수만큼 신규 채용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한전 임직원 수는 2만3050명으로 전년(2만3630명)보다 580명

감소했다.

한전은 전국의 송·배전망 건설부터 운영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를 전담하는 공기업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임직원 수는 2만 3000명 이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퇴직자는 증가하지만 지속적인 등용문 축소와 재정난으로 임직원 수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수는 218명이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한전의 일반정규직 신규 채용 수는 1700명대에 달했지만, 지난 2020년

1547명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 1047명, 2022년 482명으로 급감했다.

한전의 신규채용 규모 감소는 극심한 재무위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한전 안팎에서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지역 사무소 조정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일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자, 빛고을혁신도시 입주 기업인 한전의 신규채용 축소 문제는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24명으로 2021년 119명, 2022년 71명에 견줘 대폭 감소했다.

한전은 재정난으로 인한 빈 자리를 제대로 채우지 못할 정도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022년 라-우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가

격은 폭등한 반면, 한전은 원가 대비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면서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졌다.

지난 2021-2022년까지 38조5000억원의 영업 손실이 났고, 지난해 누적적자만 45조에 달한 실정이다.

다만, 막대한 한전의 부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상해왔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5월 역사적 구조를 해소했고 3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망하고 있지만 200조 규모의 막대한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만 130억원에 달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등용문 정상화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aT, 간편식 수출 활성화 모색 김춘진 사장, (주)살림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은 지난 15일 나주시 소재 즉석식품 및 군납 전투식량 등을 생산하는 ㈜살림을 방문해 간편식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살림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품질경영 시스템 국제규격인 ISO9001,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이노비즈)을 획득하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식품 생산시스템을 갖춘 진공동결건조 전문 기업이다.

김 사장은 "간편식을 선호하는 식생활 트렌드 및 한류 열풍에 따라 가공식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사도 수출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지마케팅 확대 등 K-푸드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다양한 수출지원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유예

설 민생안정대책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지난해 1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1kWh 당 +13.1원, 지난해 5월 1kWh당 +8.0원 등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 조정했지만, 취약계층에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면서 부담을 완화해왔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유예 조치로 기초생활수

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365만호의 취약계층 가구가 전기요금 혜택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지난해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 할인 효과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월 인상은 내년 1월 1일, 5월 인상은 내년 4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이달 17일부터지만 지난 1-16일에 사용한 전기요금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연장 조치가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으로 예상된다"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켄텍 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2024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갖고 있다. <켄텍 제공>

농어촌공사, 스마트팜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

윈스톱 수출·수주지원 활용 등 기재부·스마트팜 기업 등 참석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서울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4년 스마트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며, 기획재정부·농촌진흥청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국내 스마트팜 기업 150여 개사가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방안 ▲ 윈스톱 수출·수주지원 활용 ▲기관별 스마트팜 지원 정책 ▲글로벌 기술 동향 ▲해외 정책 및 법적

유의사항 ▲성공 사례 분석 등 한국형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돼 진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설명회에서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간 협업 및 컨소시엄 구성을 촉진하고, 기업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링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지원관리사는 "이번 설명회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기관 간 통합 지원체계를 견고히 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 지원에 앞장서 수출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대, 창업·혁신기술 강화 위한 'CES 2024' 탐방

4개 팀 구성...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참여해 창업과 혁신기술 개발 역량을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켄텍은 대학원생·학부생을 대상으로 CES 참가를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등을 통해 4개 팀을 구성했다. 각 팀은 팀별 주제를 선정해 글로벌 창업 기업과 미래기술 트렌드를 조망하고 보고서 작

성과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켄텍 학생들은 지난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버클리 대학교 캠퍼스에 위치한 버클리 국립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브리핑을 듣고, 가속기 장비를 견학하며 다양한 사용 용도에 대해 학습하기도 했다.

또 실리콘 밸리 소재의 구글 등 회사의 업계 전문가 5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신 기술 트렌드,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시 마케팅 방법 및 펀딩 방법, 인

큐베이션기타 등에 대한 실질 경험을 논의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재석 학생은 "세계 각지 유수의 기업들이 모인 CES 2024에서는, 지구의 수많은 문제들, 특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신소재, 수소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기업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견학하며 에너지 기술의 트렌드를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